아듀 태릉!…허정무 부총재가 말하는 ‘기적을 만든 불암산 비명’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가 기억하는 태릉선수촌은 축구선수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던 ‘불암산 크로스컨트리의 기적’이 있다. 외박 외출을 앞두고 모든 선수들이 참가하는 ‘불암산 크로스컨트리’는 인간의 극한을 시험하는 무대다. 동료들을 짊어지고 불암산을 오르는 대표선수들. 스포츠동아DB

외박 나가는 날 열리던 ‘불암산 지옥문’… 꼴찌는 외박도 취소

전 종목 통틀어 매주 1회 크로스컨트리
단골 꼴찌 박장순, 절친 안한봉에 물동냥
99년 축구선수 5명 톱10 기적같은 사건

대표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오직 태릉선수촌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흐른 것은 아니다. 뒷산 불암산에도 숱한 추억이 있다. 언젠가부터 종목별로 나뉘어졌지만 매주 1회 산악훈련(크로스컨트리)을 전종목 통합으로 진행했다.

전체 선수들이 함께 하는 오전 기상체조 에어로빅과는 별개다. 외박을 나가는 날 오후 2시 불암산 밑에 모이는데,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그날은 전쟁이었다. 특히 복싱, 유도, 레슬링 등

허정무

투기종목이 팽팽한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대개 1등은 복싱. 2위를 놓고 레슬링과 유도 등이 경합했다.

넘어지고 미끄러져 피를 흘리는 것은 기본. 그래도 무조건 달려야 했다. 포기는 곧 죽음이었다. 물론 꼴찌는 더욱 끔찍하다. 외박이 취소된다. 어렵게 잡은 미팅도 포기해야 한다. 레슬링 자유형 박장순 감독은 문제아였다. 힘은 차고 넘치는데 뛰는 건 쥐약이었다. 남녀 선수들을 통틀어 거의 최하위를 도맡았다는 후문이다.

에피소드가 있다. 반환점(헬기착륙장)에 이온음료가 준비돼 있는데 물론 꼴찌는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산악훈련 상위권의 레슬링 그레코로만형의 ‘절친’안한봉 감독이 친구를 위해 한 병씩 몰래 빼돌렸다.

내리막길의 안한봉과 마주친 오르막길을 뛰던 박장순의 타들어가는 외침. “친구야, 나 살려줘! 이러다 죽겠다. 음료수는 물론 빼놓았냐?”

구기종목인 축구도 오랫동안 태릉선수촌에 머물렀다.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가 건립된 2002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떠났지만 2000시드니올림픽까지 선수촌에서 숙식했다. 축구선수들은 항상 여자 선수들의 인기투표 1위였다. 천연잔디가 없어 오후 훈련은 밖에서 했지만 다른 종목과의 교류가 많았다. 허정무 부총재는 선수, 감독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1972년 선수로 처음 입촌 해 그해 겨울을 보낸 그는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2000년 전후를 선수촌에서 보냈다. 사실 태릉선수촌에서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았다.

한바탕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대표팀 무단이탈 사건 탓이다.

다행히 허 부총재의 부탁을 받아들여줬고, 별다른 사고도 없었다.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선수촌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1999년에 진행된 산악훈련에 나선 축구선수 5명을 전체 10위권에 집어넣은 것. 과장을 살짝 보태면 2010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한 것 못지않은 기적이었다.

그날 레슬링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외박도 취소, 혹독한 체력훈련을 주말 내내 반복했다. 허 부총재는 태릉선수촌에서 연애도 했다. 지금의 부인(최미나)과 비밀리에 만나면서 사랑을 쌓았다. 동료들 눈을 피한 1시간 남짓한 만남은 더 애틋했다. 물론 끝까지 비밀이 지켜지지는 못했다.

허 부총재는 “선수 때 징그럽고 끔찍한 곳이었다. 그래도 훈련다운 훈련을 해서였을까. 그곳에서 내가 성장했다. 감독으로서 선수촌을 마지막으로 경험했으니 더욱 특별하다. 진천선수촌의 탄생은 축복할 일이지만 태릉에서의 추억도 함께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태릉, 동대문운동장의 전철 밟지 말아야

체육회, 8개 건축물 문화재 등록 재심 청구
개발에 밀려 사라진 동대문운동장의 교훈

태릉의 운명은 어떻게

진천선수촌이 공식개촌 하면서 그간 한국체육을 든든히 지켰던 태릉선수촌은 영욕의 시대를 마감했다. 1966년 완공 이후 반세기 넘도록 2만여 태극전사가 오직 승리를 위해 피와 땀, 눈물을 흘렸던 태릉선수촌.

명실상부 ‘한국체육의 산파’는 과연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문화유산 보호 위해 철거되는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은 2009년 유네스코가 주변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유네스코는 국가대표 훈련장이 태릉과 강릉 사이에 들어서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선수촌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목 아래 선수촌을 철거해야하면서도 한국체육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2015년 7월 태릉선수촌 건축물 8개(승리관·월계관·개선관·챔피언하우스·올림픽의 집·영광의 집·행정동·운동장)를 문화재로 등록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16년 3월 등록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2017년 7월 보완자료를 제출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한국체육 숨결 사라진 동대문운동장

체육계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진다. 근대문화유산인 태릉선수촌 전체를 지키진 못하더라도 일부는 기필코 보존해야한다는 것이다. 체육계로선 몇 해 전 아픈 기억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된 동대문운동장(옛 서울운동장) 때문이다.

1925년 준공 이후 각종 대회를 개최하며 한국체육의 메카를 자처했던 동대문운동장은 개발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2007년 철거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재개발 문제를 놓고 야구계를 비롯해 체육계 전체가 반대했지만, 결국 이듬해 완전 철거된 뒤 현재는 조명탑 두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동대문운동장을 상징했던 고교야구의 함성과 실업축구의 열기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10년 전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역사의 일부를 빼앗겼던 체육계는 이번만큼은 태릉선수촌을 쉽게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0월 중순부터 태릉에서 진천으로 시설 이전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한 철거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태릉선수촌엔 역사적인 장소는 물론 최근에 새로 지은 시설이 수두룩하다. 대한체육회로서도 한국체육사를 지키기 위해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8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방어율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KIA	140	84	55	1	0.604	-	2승	0.302	4.75	0.625	882	716	166	74	93
2	두산	141	82	56	3	0.594	1.5	1패	0.294	4.41	0.574	836	668	175	69	88
3	롯데	142	78	62	2	0.557	6.5	3승	0.285	4.59	0.638	732	697	151	92	85
4	NC	141	77	62	2	0.554	7.0	2승	0.292	4.72	0.609	759	729	145	91	106
5	SK	141	73	67	1	0.521	11.5	2승	0.273	5.07	0.592	752	757	231	52	107
6	넥센	141	69	70	2	0.496	15.0	1패	0.289	4.97	0.557	772	735	136	70	86
7	LG	140	68	69	3	0.496	15.0	1승	0.283	4.28	0.536	687	655	108	77	101
8	한화	140	61	78	1	0.439	23.0	2패	0.288	5.28	0.441	722	795	144	64	86
9	삼성	141	53	83	5	0.390	29.5	3패	0.279	5.90	0.391	734	895	143	98	94
10	kt	141	49	92	0	0.348	36.0	1패	0.273	5.77	0.377	630	859	115	85	111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김선빈	KIA	0.376	133	466	175	5	83	64	4	41	39	12	0.398	0.908
2	박건우	두산	0.370	128	473	175	19	90	76	20	51	61	4	0.357	1.012
3	박민우	NC	0.366	103	374	137	3	81	44	10	56	51	6	0.340	0.924
4	나성범	NC	0.350	122	486	170	24	101	97	17	58	113	8	0.343	1.010
5	박용택	LG	0.347	135	499	173	14	83	88	4	78	87	0	0.357	0.913
6	김재환	두산	0.343	141	534	183	35	108	114	4	84	119	7	0.343	1.038
7	최형우	KIA	0.343	138	499	171	26	96	120	0	105	79	3	0.374	1.034
8	로사리오	한화	0.339	119	445	151	37	100	111	10	60	61	10	0.373	1.075
9	손아섭	롯데	0.335	142	567	190	20	113	79	25	87	94	2	0.291	0.937
10	이명기	KIA	0.333	112	451	150	8	77	60	8	31	56	5	0.376	0.825
11	정근우	한화	0.330	105	391	129	11	73	46	6	42	48	11	0.341	0.863
12	서건창	넥센	0.329	136	529	174	6	84	76	15	67	68	12	0.371	0.827
13	이정후	넥센	0.328	141	539	177	2	110	47	12	65	66	3	0.327	0.820
14	송광민	한화	0.327	114	422	138	13	69	75	2	24	85	9	0.298	0.836
15	이대호	롯데	0.325	140	532	173	34	72	111	1	64	83	7	0.345	0.937
16	버나디나	KIA	0.322	135	543	175	27	117	109	30	50	107	0	0.329	0.923
17	러프	삼성	0.321	131	502	161	31	90	124	2	71	104	7	0.379	0.984
18	최정	SK	0.321	127	421	135	46	89	113	1	88	105	6	0.392	1.127
19	전준우	롯데	0.320	108	447	143	18	76	67	2	36	70	0	0.316	0.872
20	안치홍	KIA	0.316	128	472	149	19	91	88	7	46	68	13	0.313	0.877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출루율 + 장타율

•방어율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피어밴드	kt	3.04	26	160.0	67	54	8	10	0	153	20	132	38	0.251	1.15
2	장원준	두산	3.22	28	173.1	69	62	13	9	0	170	12	123	62	0.259	1.26
3	차우찬	LG	3.43	28	175.2	75	67	10	7	0	171	20	157	45	0.252	1.19
4	헥터	KIA	3.51	29	194.2	81	76	19	5	0	211	20	143	50	0.276	1.32
5	양현종	KIA	3.55	30	187.2	86	74	19	6	0	203	17	155	43	0.279	1.31
6	해커	NC	3.56	25	154.1	64	61	11	7	0	154	14	93	43	0.261	1.19
7	켈리	SK	3.65	29	185.0	84	75	15	7	0	200	16	183	55	0.274	1.32
8	박세웅	롯데	3.68	28	171.1	74	70	12	6	0	170	21	117	65	0.263	1.32
9	소사	LG	3.78	29	178.2	81	75	11	10	1	178	11	146	37	0.258	1.19
10	레일리	롯데	3.84	29	180.2	85	77	13	7	0	193	18	150	59	0.275	1.30
11	브리검	넥센	3.95	23	141.1	67	62	10	5	0	156	17	96	37	0.281	1.28
12	박종훈	SK	4.16	28	149.1	74	69	12	7	0	143	16	105	84	0.254	1.36
13	니퍼트	두산	4.20	29	173.2	88	81	14	8	0	173	20	157	86	0.261	1.43
14	팻딘	KIA	4.20	29	169.1	84	79	8	7	0	206	20	135	53	0.307	1.44
15	윤성환	삼성	4.28	28	174.1	86	83	12	9	0	181	22	130	52	0.271	1.25
16	최원태	넥센	4.46	25	149.1	76	74	11	7	0	161	19	126	46	0.276	1.31
17	유희관	두산	4.49	29	188.1	103	94	11	6	0	227	20	106	51	0.303	1.42
18	로치	kt	4.84	27	158.0	105	85	3	15	0	197	18	96	69	0.310	1.60
19	고영표	kt	5.08	25	141.2	84	80	8	12	0	170	13	125	34	0.299	1.31
20	문승원	SK	5.33	28	152.0	96	90	6	12	0	176	24	85	63	0.292	1.50

※ 피타율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 ÷ 이닝

프로야구 기록표 〈28일〉

•LG-kt 16차전 〈LG 11승 5패〉

수원	LG	0	4	0	2	0	1	0	4	4	15	3시간38분
	kt	1	1	0	0	2	0	1	1	0	6	관중 7,628

▲결승타=문선재(2회 1사 만루서 좌익수 희생플라이) ▲홈런=정현6호(1회1점 차우찬) 양석환14호(2회1점 정성곤) 문선재2호(4회2점 정성곤) 로하스18호(8회1점 진해수) 유강남15호(9회3점 이종혁) ▲2루타=유한준(2회) 이형종(2회) 오태곤(5회) 박기혁(6회) 문선재(6회) 정성훈(8회) ▲실책=윤석민(5회) ▲도루자=오태곤(5회) 백승현(7회) ▲주루사=박기혁(6회) ▲병살타=윤석민(1회) 김재율(1회) 정현(3회) ▲포일=유강남(8회) ▲폭투=차우찬(5회) 김지용(6회) 배제성(8회) ▲심판=우효동 오훈규 구명완 김병주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삼	실	자	평균자책점
승	차우찬	28	10	7	0	5.0	81	19	17	6	1	1	1	2	4	4	3.43
홀	김지용	6.2	53	4	3	3	1.0	10	3	3	1	0	0	0	1	0	5.09
	임정우	7.5	16	0	0	0	0.1	8	3	3	2	0	0	0	1	1	2.93
홀	진해수	7.8	75	3	3	1	1.0	22	5	5	2	1	0	0	2	1	3.93
	이동현	8.4	44	2	6	7	0.2	10	3	3	1	0	0	0	1	0	4.89
	임찬규	9.7	26	6	9	0	1.0	14	3	3	0	0	0	3	0	0	4.49
패	정성곤		26	3	12	0	4.0	69	21	18	8	2	2	1	2	6	6	8.11
	김사율	5.4	18	3	2	0	1.0	20	5	4	0	0	1	0	1	0	0	7.34
	홍성용	6.9	36	0	2	0	1.0	32	7	5	2	0	2	0	1	1	1	6.39
	강장산	7.7	16	0	0	0	1.0	12	3	2	0	0	1	0	2	0	0	5.68
	배제성	8.1	21	0	0	0	0.0	14	5	4	4	0	1	0	0	4	4	8.72
	배우열	8.6	25	0	2	0	1.0	15	4	2	0	0	1	1	1	0	0	9.19
	김재윤	9.1	41	3	5	15	0.1	19	4	4	3	0	0	0	0	3	3	5.79
	이종혁	9.5	15	2	0	0	0.2	8	3	3	1	1	0	0	1	1	1	7.00

•KIA-한화 15차전 〈KIA 10승 5패〉

대전	KIA	0	0	0	1	0	0	2	3	1	7	2시간55분
	한화	0	4	0	0	0	0	0	0	0	4	관중 5,738

▲결승타=안치홍(8회 2사 만루서 우전 안타) ▲2루타=최진행(2회) 하주석(2회) 오선진(2회) 김주찬(4회) 이범호(7회) ▲실책=김선빈(2회) 하주석(4회) 안치홍2(7 9회) ▲도루=오선진(9회) ▲병살타=김태균(7회) ▲포일=최재훈(8회) ▲폭투=박상원(9회) ▲심판=이영재 박기택 추평호 송수근

		경기	승	패	세	회	구	석	수	안	홈	4사	희	삼	실	자	평균자책점
승	헥터	29	19	5	0	8.0	117	35	31	8	0	2	2	3	4	2	3.51
세	김세현	9.9	46	1	5	17	1.0	13	4	4	0	0	0	0	0	0	5.66
	비야누에바		20	5	7	0	6.2	89	25	24	3	0	1	0	4	3	2	4.18
홀	김경태	7.8	17	1	0	0	0.1	4	1	1	0	0	0	0	1	0	0	1.46
패	심수창	8.9	47	3	1	2	0.1	8	3	2	2	0	0	1	0	2	2	4.73
	정우람	8.3	55	6	4	26	0.1	15	4	2	1	0	2	0	0	1	1	2.83
	박상원	8.7	16	0	0	0	1.1	22	6	4	1	0	1	1	1	1	1	4.91

경기예고

주말 프로야구

•2017 KBO리그

29일	두산 (장원준)	〈잠실〉	LG (소사)	롯데 (린드블럼)	〈문학〉	SK (다이아몬드)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KNN-R, 부산MBC-R		
	KIA (팻딘)	〈대전〉	한화 (안영명)	넥센 (밴헤켄)	〈마산〉	NC (맨쉽)
	오후6시30분, SKY스포츠, 대전 CMB, 대전MBC-R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SPOTV, 경남MBC-R		
30일	삼성	〈잠실〉	LG	SK	〈대전〉	한화
	오후5시, MBC스포츠플러스, SPOTV, 대구방송-R			오후5시, SBS스포츠, 대전 CMB		
	넥센	〈마산〉	NC			
	오후5시, KBSN스포츠, 경남MBC-R					
1일	삼성	〈잠실〉	LG	두산	〈대전〉	한화
	오후2시, KBSN스포츠, 대구방송-R			오후2시, SBS스포츠, SKY스포츠, 대전 CMB		
	KIA	〈수원〉	kt			
	오후2시, SPOTV					

주말 프로축구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30일	포항	〈포항스틸야드〉	상주	전남	〈순천팔마〉	서울
	오후3시, SPOTV+			오후3시, KBSN스포츠		
	대구	〈대구스타디움〉	인천			
	오후3시, MBC스포츠플러스2, 대구MBC TV					
1일	수원	〈수원W〉	전북	제주	〈제주W〉	광주
	오후3시, SPOTV+			오후3시, MBC스포츠플러스2, 광주CMB		
	강원	〈평창올림픽아이스〉	울산			
	오후3시, SPOTV2					

아마추어 경기예고 〈29일〉

축구 ●2017 U리그 •플레이오프=홍익대-배재대(수원영흥, 오전11시), 숭실대-세한대(숭실대, 오후3시)
●2017 후반기 전국 고등 축구리그
•서울 강남=장훈고-동대부고(장훈고), 중앙고-중경고(중앙고, 이상 오후4시) •서울 강동=보인고-상문고(보인고), 중동고-강북FC(중동고, 이상 오후5시) •서울 남부=중랑FC-서울중랑(용마폭포, 오후5시) •서울 서부=노원레인보우-용산FC(불암산, 오후6시10분) •경기 RESPECT 4=뉴양동FC-KHT일동(포천축구, 오후6시), 노곡FC-포천양지(포천축구, 오후7시40분) •경기 RESPECT 9=중동FC-용호고(부천옥길, 오후1시30분), 화성FC-용호고(부천옥길, 오후3시10분), 광문고-광명공고(부천옥길, 오후4시50분)

배구 ●2017 대학배구리그(각 홈팀체육관, 오후3시)
●제 72회 전국 남여 종별 선수권대회(강원 고성, 오전10시)

테니스 ●2017년 제 2차 한국 실업 테니스연맹전(함양스포츠파크 테니스장)
●2017년 이덕희배 춘천 국제 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춘천 송암테니스코트)

골프 ●2017 KPGA 7차 카이도시리즈 카이도 Only 제주오픈(크라운 CC)
●2017 KPGA 챌린지투어 12회대회(그랜드 CC, 오전7시)